

영문학석사 학위논문

병렬언어자료에 나타난 over의 의미
및 한국어대응표현에 관한 연구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전공

영문학석사 학위논문

병렬언어자료에 나타난 over의 의미
및 한국어대응표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영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전공

한 명 희

한명희의 영어영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 심 문 학 박 사 전 춘 배 (인)

위 원 문 학 박 사 배 재 덕 (인)

위 원 언 어 학 박 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V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1. over의 원형장면 3

2. over의 개별 의미 4

2.1 A-B-C 궤도다발 5

2.2 덮기 13

2.3 상위-근접 15

2.4 위 다발 19

2.5 재귀성 25

III. over의 개별의미와 한국어 대응표현

1. 개별의미별 분포 29

2. 개별의미별 한국어 대응표현 31

2.1 원형장면 31

2.2 건너편 의미 34

2.3 완료 의미 37

2.4 시간 의미 39

2.5 덮기 의미	42
2.6 검사 의미	45
2.7 주의초점 의미	46
2.8 더 많음 의미	47
2.9 통제 의미	48
2.10 재귀 의미	49
2.11 반복 의미	49

VI. 결론	51
--------------	----

참고문헌	55
------------	----



표 목 차

[표1] 한국어대응표현의 유무분포	30
[표2] 원형장면의 한국어 대응표현	32
[표3] 건너편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34
[표4] 완료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37
[표5] 시간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39
[표6] 덮기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42
[표7] 더 많음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47



그 립 목 차

[그림1] over의 원형장면	4
[그림2] over의 의미 망조직	5
[그림3] 건너편 의미	6
[그림4] 상위-초월 혹은 초과 I 의미	9
[그림5] 완료 의미	10
[그림6] 전이 의미	11
[그림7] 시간 의미	13
[그림8] 덮기 의미	14
[그림9] 검사 의미	17
[그림10] 주의초점 의미	18
[그림11] 위 다발	20
[그림12] 더 많음 의미	21
[그림13] 초과Ⅱ 의미	22
[그림14] 통제 의미	24
[그림15] 선호 의미	25
[그림16] 재귀 의미	26
[그림17] 반복 의미	27

*A Parallel Corpus-based Study on Meanings of
"over"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Myung-Hee Han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15 senses of the preposition "over" (Tyler & Evans 2003) study and to examine how they are translated into Korean. This study analyzes 148 sentences from parallel corpus.

This study shows that some senses has more translations while others has less or no translations. For example, "temporal sense" has 6 translations such as "*dong-an*", "*kan*", "*chae*", "*ulo*", and "*kada*".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some senses are translated into a verb, a noun rather than a postposition. For example, "covering sense" has two kinds of translations such as "*wi*", "*e*", and "*patchida*".

The result shows that the preposition "over" are translated into Korean very variously and each Korean meaning is related very closely. In addition, though the word "over" is just a word class in English, it appears to be various word classes.

I. 서론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영어에는 있지만 한국어에는 없는 품사인 전치사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치사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Tyler & Evans(2003)에 의하면 전치사 중에서도 ‘over’은 가장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래 예문에 사용된 ‘over’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자.

- (1) My grandmother was a great one for mixing historical lessons in with child rearing. A favorite used when one of the grandchildren was being bucked for failing to satisfactorily complete some minor task and was, consequently, being required to do it over_A, involved pointing to the needle-point text hanging over_B the sofa which read, ‘We won’t come back ‘til it’s over_C, over_D there.’ This was inevitably followed by the question, ‘Where would the world be if they hadn’t done their job properly?’ (Tyler & Evans 2003: 1)

위 텍스트에 나타난 네 개의 over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over_A*는 ‘again’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고, *over_B*는 ‘above’로, *over_C*는 ‘finished’로, *over_D*는 ‘in some other place’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의미들은 각각 한국어로 ‘다시’, ‘위에’, ‘끝나다’, 또는 생략되어 나타났다. 위 예문에서 나타난 의미 외에도 전치사 over가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Tyler & Evans(2003)의 입장에서 병렬언어자요

에서 발견되는 전치사 over의 다양한 의미 및 그 분포를 알아보고 각 의미들의 한국어 대응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병렬언어자료(parallel corpus)는 한영병렬 언어자료와 영한병렬언어자료가 있는데, 먼저 한영병렬언어자료로는 한국 소설 작품 4개--이문열(1987)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하 영웅으로 약함)과 그 영역본 O'Rourke(1995)의 'Our Twisted Hero'(이하 Hero로 약함), 신경숙(1993)의 '풍금이 있던 자리'(이하 풍금으로 약함)와 그 영역본 Tennant(1998)의 'Where the Harmonium Was'(이하 Harmonium으로 약함), 김원일(1998)의 '마음의 감옥'(이하 감옥으로 약함)과 그 영역본 Pickering(1997)의 'Prisons Of The Heart'(이하 Prisons로 약함), 윤후명(1995)의 '하얀 배'(이하 배로 약함)와 그 영역본 Shaffer(1997)의 'White Ship'(이하 Ship로 약함)--이고, 영한병렬자료로는 영한 대역 Reader's Digest(이하 R.D.로 약함) 80, 81집(2006), 85집(2007), 92, 93집(2008) 총 5권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Tyler & Evans(2003)가 제시한 over의 개별의미를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over의 개별의미 및 그 분포를 알아보고, 각 개별의미가 어떤 한국어 대응표현들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을 기반으로 over의 원형장면(proto-scene)과 원형장면에서 파생된 개별의미들을 살펴 보겠다.

1. over의 원형장면

over의 원형장면은 ‘탄도체가 지표¹⁾보다 위에 있지만 지표와 잠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Tyler & Evans(2003: 64)는 공간적 형상(spatial configuration)과 ‘탄도체와 지표는 서로 영향권 안에 있다’는 기능적 요소(functional element)를 둘 다 말해준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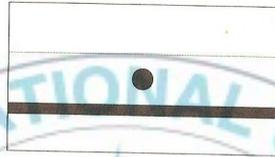
- (2) a. The bee is hovering over the flower.
- b. The tree is leaning over the river.
- c. The picture is over the mantel.

위의 세 문장은 보통 벌은 꿀을 따기 위해 꽃에 내려앉으며(2a), 나무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강 표면과 닿을 수 있고(2b),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올 수 있다(2c)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이런 공간적 형상으로부터 초래되는 기능적 양상은 지표(또는 탄도체)가 탄도체(또는

1) 탄도체(Trajector)와 지표(Landmark)는 Langacker(1987)를 따라서 각 각 궤도를 따르는 초점요소와 그 배경요소를 지칭한다.

지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원형장면은 [그림1]로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1]에서 탄도체는 검정색원으로 표시되고 지표는 두꺼운 수평선으로 표시되고 있다. 지표에 인접해 있는(즉, 지표와 잠재적으로 접촉하는)것으로 개념화되는 지역은 점선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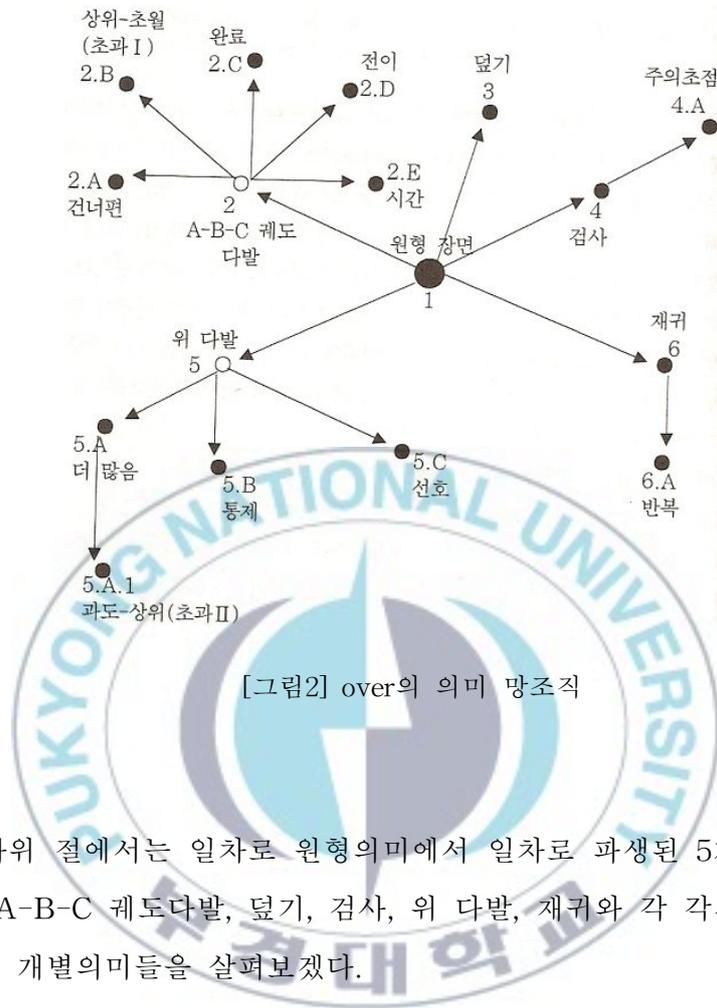


[그림1] over의 원형장면

[그림1]의 over의 원형장면은 탄도체는 지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표는 탄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이 원형의미에서 파생된 개별의미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2. over의 개별의미

원형장면 및 그 원형장면에서 파생된 15개의 개별의미가 아래 [그림2]에 제시되어 있다(Tyler & Evans 2003: 80).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원은 각 개별의미를 나타내며, 흰색 원은 의미다발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2] over의 의미 망조직

아래 하위 절에서는 일차로 원형의미에서 일차로 파생된 5개의 파생의미 즉, A-B-C 궤도다발, 뒹기, 검사, 위 다발, 재귀와 각 각의 파생의미에 속한 개별의미들을 살펴보겠다.

2.1 A-B-C 궤도 다발(A-B-C trajectory cluster)

원형 의미에서 일차로 파생된 5개의 의미 중 첫 번째인 A-B-C 궤도 다발에 속한 다섯 개의 개별 의미, 즉 건너편, 상위-초월(초과 I), 완료, 전이, 시간 의미가 파생된다. 첫 번째 건너편 의미를 살펴보자.

① 건너편(on-the-other-side-of)의미

탄도체의 이동이 완료될 때 궤도의 시작점에 상대적인 지표의 건너편에 위치한다는 것을 건너편 의미라 부른다. 이 때, 동사는 출발/뛰어오르기 지점을 기술하고, 탄도체는 공중에 떠 있을 수 없고 지상으로 되돌아 와야 하며, 지표는 앞으로의 이동에 대한 장애물로 해석되고, over는 핵심적인 공간적 형상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Tyler & Evans(2003)의 [그림3]에서 over의 건너편 의미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3]에서 왼쪽에 있는 눈 아이콘은 관찰지점을 나타내고, 수직선은 지표(즉, 방해물)을, 검은 색은 탄도체를 나타낸다.



[그림3] 건너편 의미

over가 건너편 의미로 사용된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3) The ball landed over the wall.

위 문장은 해석자(즉, 관찰지점)가 궤도의 처음지점 근처에 있고, 벽 너머에 있는 지역이 궤도의 도착지점으로 해석된다. 즉 탄도체는 관찰지점이 반대 면이 되는 경우에만 지표의 건너편에 있을 수 있다.

건너편 의미는 영어에서 상당히 생산적이다. 이것은 탄도체의 이동이 없

이도 건너편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4) a. The old town lies over the bridge.
- b. The mansion is situated over that wall.
- c. John lives over the hill.

위 세 문장에서 over는 건너편 의미이지만 탄도체가 지표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거나 뛰어오르기 혹은 이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over는 관찰지점으로부터 각각 탄도체 ‘the old town’, ‘the mansion’, ‘John’가 지표 ‘the bridge’, ‘that wall’, ‘the hill’의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②상위-초월(초과 I)(above-and-beyond)의미

상위-초월 의미는 탄도체가 의도한 목표물인 지표를 넘어서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 이런 상위-초월 의미는 다음 문장에 나타난다.

- (5) a. The arrow flew over the target and landed in the woods.
- b. Lissa just tapped the golf ball, but it still rolled over the cup.

탄도체 ‘the arrow’의 이동은 지표 위로 넘어갔거나 행위자가 의도했던 곳을 초과했다. 유사하게, 골프 경기 및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표에 관한 일반 지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대부분의 화자는 행위자(Lissa)가 가볍게 쳐서 움직이게 한 탄도체 ‘the ball’이 결국 지표 ‘the cup’에 들어가도록

의도했다고 가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공은 행위자가 의도했던 곳을 위로 넘어가거나 그곳을 초과해서 이동했다. (5a,b)와 같은 문장에서 지표는 목표물이나 목적지로 해석되고, 아마도 탄도체가 목표물과 접촉하도록 의도된다. 탄도체가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지표 위로 넘어 간다. 목표물 위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 멀리 가거나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i) 지표를 목표물/목적지로 해석하고, (ii) 탄도체가 지표 위로 통과하는 것을 탄도체가 목표물/목적지를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함축은 재분석되어서 개별 의미가 의미망조직에 첨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위-초월 의미(above-beyond sense)가 개별적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그 의미가 문맥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부터 나온다.

(6) Your article is over the page limit.

이 문장에서 over가 물리적 '상위'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오히려, 논문에 대해 확정되었거나 정해진 페이지가 있으며, 실제 페이지가 그 목표를 넘어갔다(즉, 초과했다)라고 해석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문(6)에서도 지표가 물리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over가 공간적 형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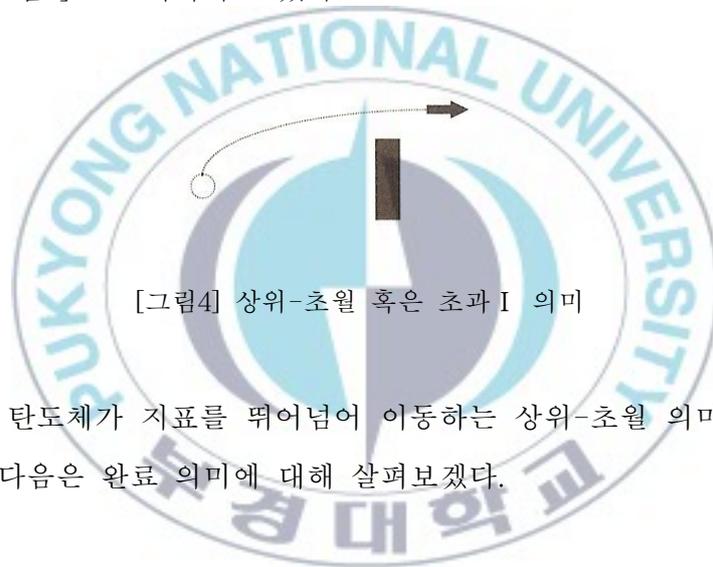
지표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다.

(7) Most students wrote over the word limit in order to provide sufficient detail.

이 문장에서 작문에서 낱말 한도는 지표로 해석되고 작문을 하는 학생은

탄도체로 해석된다. 즉, 예문(7)과 같은 예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다소 물리적으로 위로 넘어간다는 공간적 형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위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공간적 장면 및 공간적 경험이 어떻게 본질상 일차적으로 공간적이지 않은 개별 의미 성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예증한다.

Tyler & Evans(2003)은 지표를 중심 과녁으로 표상하고 궤도의 현저한 ‘초월’(beyond) 부분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over의 상위-초월(초과 I)의 의미를 아래 [그림4]로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4] 상위-초월 혹은 초과 I 의미

여기까지 탄도체가 지표를 뛰어넘어 이동하는 상위-초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완료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③ 완료(completion)의 의미

탄도체의 공간적 위치가 과정의 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재해석됨으로써 완료라는 의미성분이 발생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8) a. The cat's jump is over.
 b. The film/game/play is over.

(8a)의 예문의 경우 공간을 통해서 장애물을 넘는 이동의 끝점(즉, 탄도체가 정지하는 위치)은 이동의 완료로 해석된다. 따라서 탄도체의 공간적 위치가 과정의 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완료라는 의미성분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 문장에서의 완료 의미는 순수한 공간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완료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부사적인데, 즉 완료는 지표가 아닌 과정을 가리킨다고 본다. 따라서, 완료의 의미는 전치사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료-전치사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표상된다(cf. Bolinger 1971; O'Dowd 1998).²⁾



[그림5]에서 왼쪽에 있는 검은색 타원은 과정이 시작되는 탄도체의 위치를 나타낸다. 초점을 받는 더 큰 원은 끝점이나 완료를 나타낸다.

건너편 의미가 과정이 완료될 때 탄도체의 공간적 위치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완료 의미는 건너편 의미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대조적으로 완료 의미는 궤도의 도착지점을 이동이나 과정의 끝으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2) 이것은 '표현의 문법적 부류가 윤곽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Langacker(1992: 279)와 일치한다. 부사가 어떤 관계를 탄도체로 취하고 현저한 지표는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사가 윤곽 부여하는 관계는 전치사가 윤곽 부여하는 관계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대조적으로, 전치사는 실체를 탄도체로 취하고 관계적 지표를 정교화 한다.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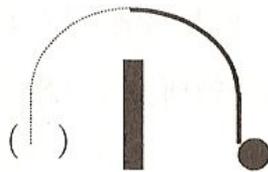
④ 전이(transfer)의미

탄도체가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즉 공간적 장면을 탄도체가 한 위치, 즉 궤도의 출발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인 궤도의 도착지점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아래 문장을 살펴보자.

(9) a. Sally turned the keys to the office over to the janitor.

b. The bank automatically switched the money over to our checking account.

위 문장에 나타나는 개념화는 탄도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실체의 위치 변화가 실체의 전이와 경험적 상관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치 변화는 전이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6] 전이 의미

[그림6]에서 탄도체는 장애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초점을 받고 있는 검은색 점으로 표현된다.

이제 비 물리적인 실체가 전이되는 예문을 살펴보자.

(10) The old government handed its power over (to the newly elected officials).

이 문장에서는 정부 관료가 자신의 권한인 통치령을 새로운 관료에게 넘긴다는 관습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예문(10)의 경우는 탄도체인 ‘power’가 비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⑤ 시간(temporal)의미

시간 의미에서 over는 특정한 탄도체와 지속 기간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중재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11) a. The festival will take place over the week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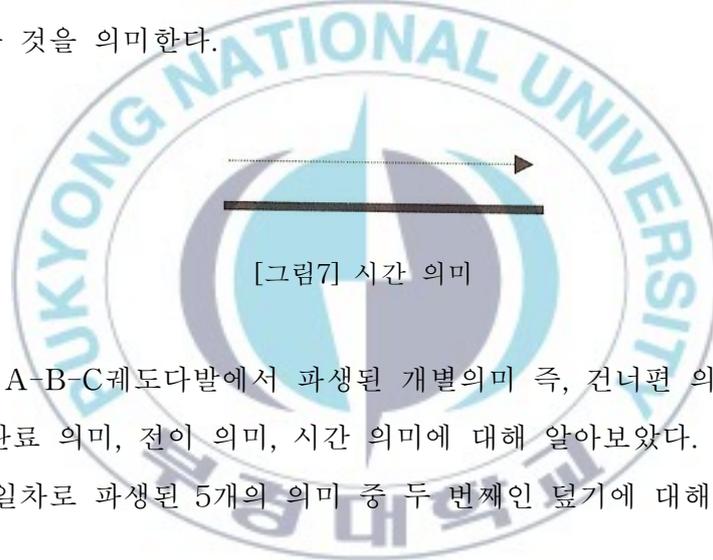
b. Their friendship has remained strong over the years.

위 두 문장에 있는 the weekend와 the years는 둘 다 시간 지표로서 탄도체가 시간을 통해 표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미라고 부른다. 다음 문장을 통해 시간의미가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12) The boy walked over the hill.

위 (12)문장은 A-B-C레도 다발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걷기와 over가 지

시하는 공간-형상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언덕과 같은 확장적 지표를 횡단할 때는 비확장적 지표를 횡단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리를 더 많이 횡단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거리와 지속기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위 문장에 나타난 지속기간은 over와 연상되는 현저한 함축이다. 이러한 시간의미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은데, [그림7]은 굵은 수평선은 지표를 나타내고, 점선 화살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며, 이것은 탄도체가 지표를 가로질러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7] 시간 의미

지금까지 A-B-C궤도다발에서 파생된 개별의미 즉, 건너편 의미, 상위-초월 의미, 완료 의미, 전이 의미, 시간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원형의미에서 일차로 파생된 5개의 의미 중 두 번째인 덮기에 대해 알아보자.

2.2 덮기(covering)의미

탄도체와 지표에 관한 관계 정의에서, (탄도체와 지표가 물리적 실체일 때) 탄도체가 지표보다 더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의미에서 탄도체는 지표보다 더 작다. 이런 기본적인 속성은 또한 over의 원형장면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초점을 받는 사물(탄도체)이 위치부여용 사물(지표)보다 더 크거나 혹은 더 큰 것으로 사실상 나타나는 경우

가 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13) The tablecloth is over the table.

우리에게 식탁 및 식탁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주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형적인 관찰지점 때문에 식탁보가 식탁위에 있을 때, 비로소 식탁보가 식탁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탄도체가 물리적으로 관찰자와 지표사이에 있게 되면 탄도체가 종종 지표나 지표의 중요한 부분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각적 효과가 생긴다. 덮기 의미는 [그림8]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눈 모양의 도식은 관찰지점을 나타내고 구형은 탄도체를 나타낸다. 탄도체는 관찰지점으로부터 보았을 때 수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표를 덮고 있다.



[그림8] 덮기 의미

따라서 ‘덮기’성분은 의미 망조직에서 개별의미로 보는데, 덮기 의미에 사용된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14) They put a transparent plastic sheet over the painted ceiling of the chapel during repairs.

위 문장에서 탄도체인 'a transparent plastic sheet'은 지표인 'the painted ceiling'보다 위치상 더 낮은 곳에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만약 over에 덮기 의미가 없다면, 이 문장의 해석은 이상해 질 것이다. 그 이유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over의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높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덮기 의미는 의미 기억 속에서 분명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원형장면에서 일차로 파생된 의미다발 중 두 번째인 덮기에 속한 '덮기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원형장면에서 일차로 파생된 의미다발 중 세 번째인 상위 및 근접과 여기에 속한 개별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2.3 상위 및 근접(above and proximal)

앞에서 언급했던 의미들 즉, A-B-C케도다발에 속한 개별 의미들과 '덮기 의미'의 관찰지점이 외부에 있었다면 다음에 소개 할 '검사 의미'와 '주의 초점의미'는 관찰지점이 옮겨져 탄도체의 지점이 되고, 더욱이 탄도체의 시선이 지표를 향해있는 특징이 있다. 아래에 원형 의미에서 일차로 파생된 세 번째 의미다발인 상위 및 근접에 속한 두 개의 개별의미인 '검사 의미'와 '주의초점의미'를 살펴보자.

① 검사(examining)의미

공간적 장면은 다양한 관찰지점으로부터 관찰될 수 있는데, 관찰지점이 옮겨진 결과로 생겨난 것이 검사 의미이다. 검사의미에서 관찰지점은 탄도

체의 지점이고, 탄도체의 시선이 지표를 향해 있다고 설명한다. 아래 문장을 통해 이러한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15) Phyllis is standing over the entrance to the underground chamber.

위 문장(15)에서는 over가 원형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공간적 관계를 보여주는데 즉, 탄도체 'Phyllis'와 지표 'the entrance to the underground chamber'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 공간적 관계에서 탄도체는 지표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지표에 근접해 있다. 문장 (15)에서는 'Phyllis'가 입구를 검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사대상을 경험하고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검사자는 검사대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지만 또한 그것에 근접해야만 한다. 만약 사물이 관찰자에 근접해 있지 않다면,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사물을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검사의미가 발생하려면 그 장면은 문맥상 검사를 암시해야 하는데, 즉 검사는 주어진 문장에서 특정한 언어적 매체로부터 도출되는 함축이다. 아래 문장을 살펴보자.

(16) Mary looked over the manuscript quite carefully.

탄도체인 'Mary'가 지표인 'the manuscript' 보다 위치상 위에 있고 또한 근접해 있고, 탄도체 'Mary'는 지표인 'the manuscript'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탄도체는 주의를 원고 쪽으로 돌리는 의미로 봐야하는데, 이것은 부가적인 의미요소로 검사의미에서는 본질적인 것으로 봐야한다. 이것은 아래 [그림9]으로 알 수 있는데, 눈 아이콘(관찰지점)은

탄도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표보다 위에 있고 근접해 있다. 관찰 지점은 초점을 받고 있지만 지표는 그렇지 않다.



[그림9] 검사 의미

또 다른 문장을 살펴보자.

(17) The mechanic looked over the train's undercarriage.

보통은 수리공이 기차의 하부구조를 검사했다고 해석한다. 이때, 탄도체인 'the mechanic'은 지표인 'the train's undercarriage' 보다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탄도체는 지표 아래에 있으며, 탄도체-지표의 공간적인 관계 및 형상이 over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는 over를 포함하는 발화는 over에 대한 다중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18) John looked over th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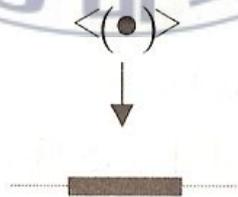
위 (18)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John'이 'the book'을 지나쳐서 'the book'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John'이 'the book' 자체를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over에는 건너편 의미와 검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 문맥에서 그 개별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

② 주의초점(focus-of-attention)의미

아래에 제시하는 문장은 주의초점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해석할 때 over를 'about'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

- (19) a. The little boy cried over his broken toy.
b. The little boy cried about his broken toy.
- (20) a. The general talked over their plans for the invasion.
b. The general talked about their plans for the invasion

위 문장에서 도출되는 의미는 검사 의미와 관계가 깊은데, 검사의미에서는 관찰지점은 탄도체의 지점이고, 지표는 탄도체보다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고 근접해 있다. 이런 점에서 검사 의미의 자연스런 결과는 검사대상인 지표가 탄도체의 주의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도체가 지표의 주의를 돌리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표가 초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검사 의미의 도식과 다른데 아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10] 주의초점 의미

주의 초점의미에서 주목할 점은 over가 원인(the reason)의 의미를 부가적으로 가진다는 것이다. 이때 over는 감정이나 분쟁의 원인, 심사숙고의 뜻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 진다.

이제 over가 감정이나 분쟁의 원인, 심사숙고의 의미인 예를 살펴보자.

(21) a. He worried over his result.

b. My friend and I had an argument over the price.

c. I'm trying to mull over the suggestion in my mind.

첫 번째, (21a)문장을 보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때 over는 탄도체의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며, 지표는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두 번째, 분쟁이나 다툼의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 (21b)를 보면, 탄도체인 내 친구와 나의 논쟁이 그 논쟁의 원인인 물가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세 번째, 심사숙고에 관한 예문 (21c)를 살펴보면, 대상체인 제안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하는 깊이가 지표보다 큰 관계를 묘사해 준다.

지금까지 원형장면에서 일차로 파생된 의미다발인 상위-근접에 속한 개별의미인 '검사 의미'와 '주의초점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원형장면에서 일차로 파생된 의미다발 중 네 번째인 위 다발에 대해 살펴보자.

2.4 수직 상승 혹은 위 다발(up cluster)

원형 의미에서 파생된 수직 상승 혹은 위 다발에는 네 개의 개별의미인 '더 많음', '과도 상위', '통제', '선호 의미'가 있다. 각 각의 의미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고 수직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수직선으로 표시된 지표에 검은색 원인 탄도체가 수직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그림11] 위 다발

인간의 경험에 있어 수직 상승된 위치에 있는 요소는 물리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요소보다 긍정적이고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다.

① 더 많음(more)의미

수직 상승과 양은 우리의 경험에서 상관관계를 이루며, 더 많음 의미에서는 over는 지표보다 위에 있는 탄도체와의 관계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2) Jerome found over forty kinds of shells on the beach.

이 문장에서 over는 '더 많음'으로 해석되며, over의미에서 연상할 수 있는 더 많음은 더 많은 양과 더 높은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 때문에 over가 더 많은 양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더 많은 양 혹은 더 많음에 대한 함축은 물리적 형상에 대한 개념화와는 다른데, 아래의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12] 더 많음 의미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더 많음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

- (23) a. The buyer offered Matt \$1,000 over the amount he was asking for his house.
- b. John is over fifty years of age.
- c. He weigh just over 150pounds.
- d. The car was going over ninety miles an hour.
- e. Mary has been in Europe for over five mon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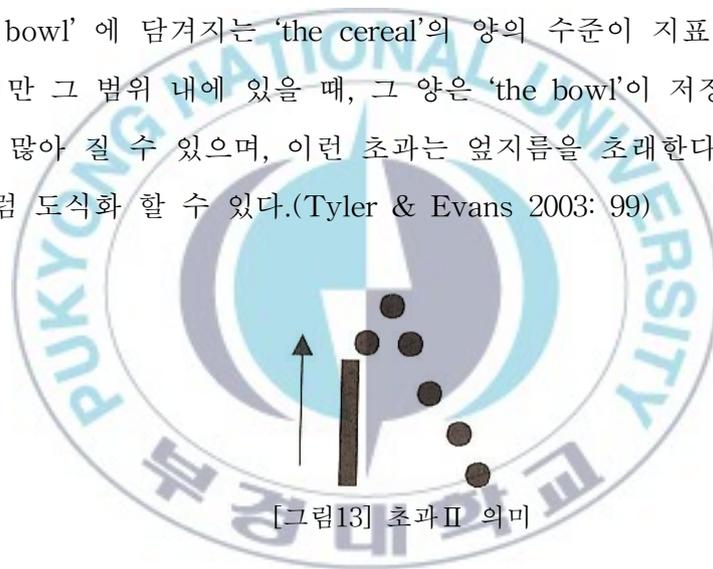
(23a) 문장에서는 ‘\$1,000’를 탄도체로 보고 더 많은 양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돈의 양은 물리적 실체로 본다. (23b) 문장에서 over는 더 많음이라는 개별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나이 체계는 양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음 의미에 의해 탄도체는 ‘John’의 나이로 지표는 쉰 살이라 간주한다. 나머지 (13c,d,e) 세 문장에서는 ‘몸무게’, ‘속도’, ‘지속 기간’ 등이 지표로 나타났다.

② 과도-상위(초과Ⅱ)(over-and-above)의미

과도-상위(초과Ⅱ) 의미는 앞서 언급한 더 많음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더 많음 해석에 ‘너무 많음(too much)’의 의미를 추가한다. 이러한 의미는 포함과 관계있는 장면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24) Lou kept pouring the cereal into the bowl until it spilled over and onto the counter.

이 문장에서 지표는 ‘the bowl’ 이고 탄도체는 사발에 담겨지는 ‘the cereal’이다. ‘the bowl’ 에 담겨지는 ‘the cereal’의 양의 수준이 지표의 꼭대기보다 더 높지만 그 범위 내에 있을 때, 그 양은 ‘the bowl’이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 질 수 있으며, 이런 초과는 넘지름을 초래한다. 이를 아래의 그림처럼 도식화 할 수 있다.(Tyler & Evans 2003: 99)



[그림13] 초과Ⅱ 의미

over와 관련해서 초과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다. 예를 들어 overflow(넘치다), overfill(넘칠 만큼 넣다), overfeed(너무 많이 먹이다), overeat(과식하다-이때 몸은 그릇이다)등은 상태, 속성, 과정이 그릇으로 해석된다. 반면, overtired(과로하다), overdevelop(지나치게 발달시키다), overreact(과잉 반응하다), over-anxious(지나치게 근심하는), overdo(도를 넘기다) 등은 그릇의 용량을 넘는 것 즉, 표준을 초과한다는 개념을 환기시킨다. 이로써 초과 I 의미와 초과Ⅱ 의미를 구분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초

과 I 의미는 궤도를 따르는 이동 및 지시된 지점을 넘어서 간다는 것에 대한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위-초월의 의미’이고, 초과Ⅱ의미는 그릇의 용량과 표준을 초과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과도-상위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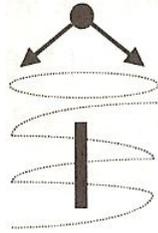
③ 통제(control)의미

수직상승과 연상되는 세 번째 경험적 상관성은 통제(control)나 권력(power)현상이다. over와 연상되는 통제 의미는 Lakoff(1987)가 제시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5) She has a strange power over me.

이 문장은 탄도체 ‘she’가 지표 ‘me’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지표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탄도체가 지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그것을 통제함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통제와 수직상승은 물리적으로 더 크고 위에 있는 것이 더 작고 낮은 것을 통제하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제의 상관물은 수직 상승이지만,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제자는 피지배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지배자와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over의 원형장면에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고 지표에 근접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그림을 통해 통제 의미를 도식화한다. 나선형의 점선은 탄도체(원)가 지표(수직선)를 통제함을 나타낸다.



[그림14] 통제 의미

④ 선호(preference)의미

선호 의미에서는 더 높은 것은 관습적으로 더 낮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더 적은 양보다 선호된다고 설명한다. 아래 문장을 통해 선호 의미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알아보자.

- (26) a. I would prefer tea over coffee.
 b. I like Beethoven over Mozart.
 c. I favour soccer over tennis.

문장 (26a,b,c)에 있는 각 각 탄도체 ‘tea’, ‘Bethoven’, ‘soccer’는 지표 ‘coffee’, ‘Mozart’, ‘tennis’보다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over)에 있는 것은 선호되는 상태를 함축한다. 예를 들어, “I’m feeling up today.”에서처럼 물리적으로 위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I’m feeling down today.”에서처럼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호의 함축은 관습화되어, 선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15] 선호의미

지금까지 위 다발에서 파생된 개별의미 즉, ‘더 많음 의미’, ‘과도-상위(초과Ⅱ)’, ‘통제 의미’, ‘선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원형 장면에서 일차로 파생된 의미다발 중 다섯 번째인 재귀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2.5 재귀성(reflexive)

원형장면에서 일차로 파생된 5개의 의미다발 중 다섯 번째인 재귀성에 소한 개별의미인 ‘재귀 의미’와 ‘반복 의미’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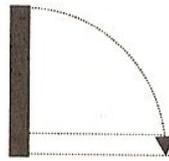
① 재귀 의미

공간적 재귀성은 다중 위치에 있는 하나의 실체가 차지하는 두 개의 다른 위치가 하나의 탄도체 지표 공간적 형상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개념화되는 현상이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27) The fence fell over.

위 문장 (27)에서 울타리의 처음 위치는 직립이지만 마지막 위치는 땅에 수평으로 놓여 있다.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울타리는 90° 각도로 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간적 관계는 시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위치가 하나의 공간적 형상으로 통합되어서 추상된다. 그러나 울타리를 재귀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한 실체는 탄도체이면서 동시에 지표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재귀 의미’(the reflexive sense) 를 도식화 한다.



[그림16] 재귀 의미

재귀 의미의 또 다른 예를 통해 재귀 의미가 과정에 대한 재분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보겠다.

- (28) a. He turned the page over.
 b. The log rolled over.
 c. The tree bent over in the wind.

위의 예처럼 over가 과정에 윤곽 부여하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은 완료 전치사로 부호화된다.

② 반복(repetition)의미

over의 용법에 반복 의미를 더 하는 것이 반복 의미인데, 이 의미는 사실 원형 장면으로부터 예측 할 수 없다. 다음 문장에 있는 over를 ‘again’ 이나 ‘anew’로 바꾸어 보도록 하자.

(29) After the false start, they started race over.

반복 의미의 또 다른 예를 통해 반복 의미가 특정한 과정 동사와 관계 있는 복합적 개념화에 제한된다는 것에 주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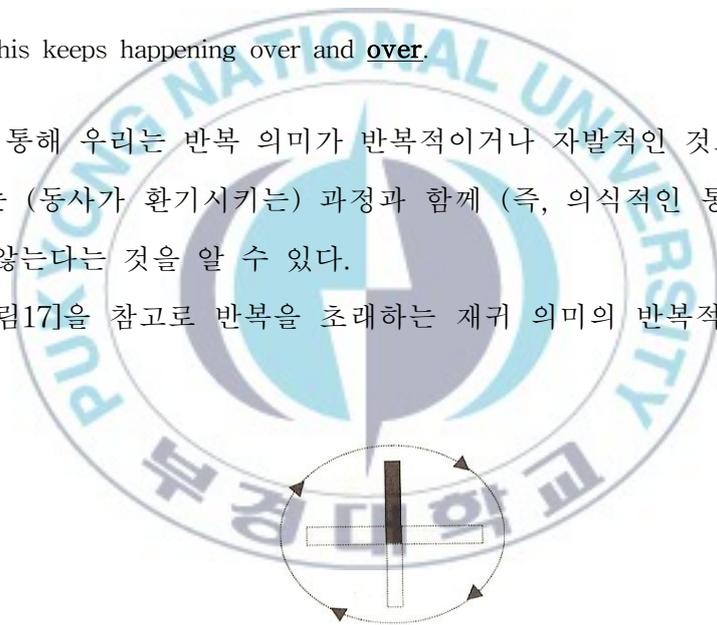
(30) a. After exercising on all the weight machines, Edna began the circuit all over.

b. He played the same piano piece over.

c. This keeps happening over and over.

위 예문을 통해 우리는 반복 의미가 반복적이거나 자발적인 것으로 개념화 될 수 없는 (동사가 환기시키는) 과정과 함께 (즉, 의식적인 통제 하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17]을 참고로 반복을 초래하는 재귀 의미의 반복적 효과를 알아보자.



[그림17] 반복 의미

지금까지 전치사 over의 원형의미와 거기에서 파생된 개별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형 장면에서 일차적으로 5개의 의미다발 즉, ①A-B-C 궤도다발, ②덮기, ③상위-근접, ④위 다발, ⑤재귀성으로 나눈 후, 다시 ①

A-B-C레도다발에서 파생된 5개의 개별의미 즉, ‘건너편 의미’, ‘상위-초월 의미’, ‘완료 의미’, ‘전이 의미’, ‘시간 의미’, ②덮기에서 파생된 ‘덮기 의미’, ③상위-근접에서 파생된 ‘검사 의미’, ‘주의초점 의미’, ④위 다발에서 파생된 ‘더 많음 의미’, ‘과도-상위 의미’, ‘통제 의미’, ‘선호 의미’, ⑤재귀성에서 파생된 ‘재귀 의미’, ‘반복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over의 이러한 개별의미들이 한국어로 어떻게 부호화되는지를 병렬 언어자료에 나타난 문장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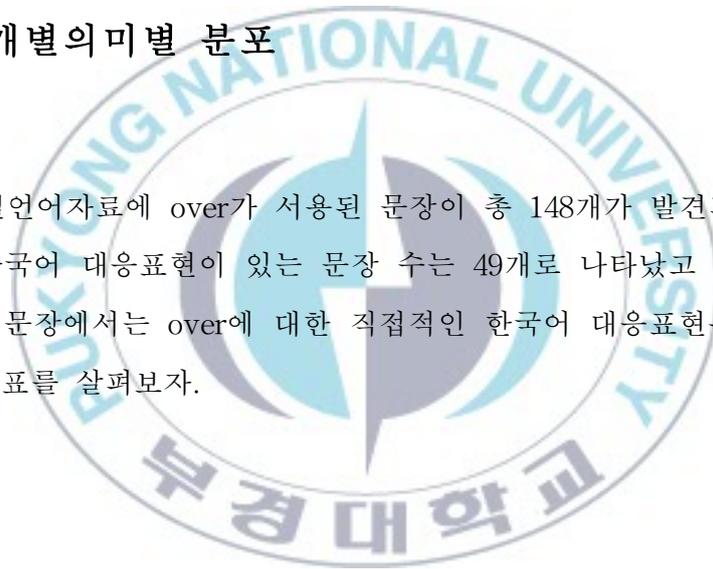


Ⅲ. over의 개별의미와 한국어 대응표현

본 장에서는 병렬언어자료에 over가 사용된 문장을 분석하여 개별의미별 분포를 먼저 알아본 다음, 각 개별의미가 한국어 언어자료에 서는 어떤 언어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개별의미별 분포

병렬언어자료에 over가 사용된 문장이 총 148개가 발견되었다. 그 중 한국어 대응표현이 있는 문장 수는 49개로 나타났고 나머지 99개의 문장에서는 over에 대한 직접적인 한국어 대응표현은 없었다. 아래 표를 살펴보자.



[표1] 한국어 대응표현의 유무분포

원칙적 다의성 모형		발견된 문장 수	대응표현이 있는 문장 수
원형 장면		18(12.1%)	8(16.4%)
A-B-C 궤도 다발	건너편 의미	50(33.7%)	5(10.2%)
	상위-초월 의미	2(1.4%)	0(0%)
	완료 의미	7(4.7%)	7(14.3%)
	전이 의미	12(8.1%)	0(0%)
	시간 의미	10(6.8%)	9(18.4%)
덧기	덧기 의미	14(9.5%)	7(14.3%)
상위-근접	검사 의미	2(1.4%)	1(2.0%)
	주의초점 의미	16(10.7%)	4(8.2%)
위 다발	더 많음 의미	8(5.4%)	5(10.2%)
	과도-상위 의미	0(0%)	0(0%)
	통제 의미	6(4.1%)	1(2.0%)
	선호 의미	0(0%)	0(0%)
재귀성	재귀 의미	2(1.4%)	1(2.0%)
	반복 의미	1(0.7%)	1(2.0%)
합계		148(100%)	49(100%)

발견된 문장 수를 보면 ‘건너편 의미’가 50개(33.7%)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으로 ‘원형 장면’ 18개(12.1%), ‘주의 초점의미’ 16개(10.7%), ‘덜기 의미’ 14개(9.5%), ‘전이 의미’ 12개(8.1%), ‘시간 의미’ 10개(6.8%), ‘더 많음 의미’ 8개(5.4%), ‘완료 의미’ 7개(4.7%), ‘통제 의미’ 6개(4.1%), ‘검사 의미’ 2개(1.4%), ‘채귀 의미’ 2개(1.4%), ‘반복 의미’ 1개(1.7%), ‘과도-상위 의미’ 0개(0%), ‘선호 의미’ 0개(0%) 순으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총 148개의 문장 중에서 한국어 대응표현이 있는 문장은 49개로 ‘시간 의미’ 9개(18.4%)부터 ‘원형 장면’ 8개(16.4%), ‘완료 의미’ 7개(14.3%), ‘덜기 의미’ 7개(14.3%), ‘더 많음 의미’ 5개(10.2%), ‘주의초점 의미’ 4개(8.2%), ‘검사 의미’, ‘통제 의미’, ‘채귀 의미’, ‘반복 의미’가 각각 1개씩(2.0%), ‘상위-초월 의미’, ‘전이 의미’, ‘과도-상위 의미’, ‘선호 의미’는 각각 0개(0%)로 나타났다.

2. 개별의미별 한국어 대응표현

over의 각 개별의미가 병렬언어자료에서는 한국어 대응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는 over가 사용된 문장 148개중 생략되거나 의역되어 over의 대응표현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응표현을 찾을 수 있는 49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1 원형 장면

원형의미로 발견된 총 16개의 문장 중 8개의 문장에서 5가지의 한국어 대응표현이 나타났다.

[표2] 원형장면의 한국어 대응표현

한국어 대응표현	~(으)로	~을/를	~에	~따라	~위로	합계
문장 수	3(37.5%)	2(25.0%)	1(12.5%)	1(12.5%)	1(12.5%)	8(100%)

첫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로’인 경우를 살펴보겠다.

(31) a. Alexander clambered over rocks and ran splashing into the sea.

(R.D. 92집: 108)

b. 알렉산더는 바위로 기어오르더니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R.D. 92: 109)

이 때, ‘~로’는 부사격 조사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낸다. over의 원형 의미로 한국어로 ‘~로’가 방향을 나타내지만 문맥에서 ‘위’로 오르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본 ‘~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낸다. (cf. 최현배 1961: 622)

두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을’인 예문을 살펴보겠다.

(32) a. They had been walking for two weeks over the desolate Nangpa

La pass when they were hit by a terrible snowstorm. (R.D. 81집:

22)

b. 그들은 2주일동안 황량한 낭파라 산길을 걷고 있다 심한 눈보라를 만났다는 것이다. (R.D.81집: 23)

한국어 대응표현인 ‘을/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한국어 문법으로 문장에서 동사인 ‘걷다’의 목적어의 역할이다. 문맥상으로는 탄도체인

‘they’가 지표인 ‘the desolate Nangpa La pass’를 걷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에’인 경우를 살펴보겠다.

(33) a. The shotgun he took off the wall of the shed and slung over his shoulder... (Harmonium)³⁾

b. 헛간 벽에 걸어둔 엽총을 꺼내 어깨에 매셨을 때... (풍금: 35)

‘~에’는 부사격 조사로 처소, 때, 대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처소인 장소를 나타낸다. 위치상 탄도체 ‘the shotgun’이 지표인 ‘his shoulder’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에’라는 말에서 ‘위’를 생략한 것이다. 네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따라’인 예문을 살펴보겠다.

(34) a. I grab my camera and take several pictures of the burnt orange sun creeping over the horizon... (R.D. 92집: 70)

b. 나는 카메라를 꺼내 타는 듯한 선홍색 태양이 지평선을 따라 퍼져나 가며... (R.D. 92집: 71)

동사 ‘따르다’를 변형한 것으로 탄도체인 ‘the burnt orange sun’이 지표인 ‘the horizon’ 위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위로’인 예문을 살펴보겠다.

(35) a. And upon returning, my first sight scanning through the throngs at Kennedy Airport was Dad’s white handkerchief waving over the

3) 병렬언어자료 중 Ship과 Harmonium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로 쪽수를 표시하지 못하였음.

crowd. (R.D.80집: 24)

- b. 귀국했을 때 케네디 공항의 군중 속에서 처음 내 눈에 띈 것은 아버지가 사람들 머리 위로 흔들고 계시던 하얀 손수건 이었다. (R.D.80집: 25)

여기에 나타난 한국어 대응표현인 ‘위로’는 탄도체인 ‘Dad’s white handkerchief’와 지표인 ‘the crowd’의 위치관계가 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over의 원형 의미에 나타난 한국어 대응표현은 문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5가지 즉, ‘~(으)로’, ‘을/를’, ‘~에’, ‘~따라’, ‘~위로’로 나타났다. 차례대로 ‘과정’, ‘장소’, ‘움직임’, ‘위치’등을 나타내고 있다.

2.2 건너편 의미

건너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이 50개 발견 되었으나, 우리말 대응표현이 있는 문장은 5개만 발견 되었다. 먼저 우리말 대응 표현이 있는 문장을 아래에 빈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말 의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문장에서 동사와 결합하여 그 의미가 동사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어 뒤에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표3] 건너편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우리말 대응표현	너머	건너	위로	합계
문장 수	3(60.0%)	1(20.0%)	1(20.0%)	5(100%)

첫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너머’인 예문을 살펴보자.

(36) a. “Bright angels around my darling shall stand,” sang a choir of children, their sweet, unschooled voices carrying over the hillside. (R.D.85집: 96)

b. “빛나는 천사들이 내 사랑 그대를 에워싸니...” 어린이들의 합창이 시작되었다. 귀엽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음성이 언덕 너머로 번져나갔다. (R.D.85집: 97~98)

여기에 나타난 한국어 대응표현인 ‘너머’는 ‘높은 것의 저쪽’(이희승: 1998)⁴⁾이란 뜻의 명사로 ‘장소, 방향’을 나타내며, 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 지표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문맥상 탄도체인 ‘their sweet, unschooled voices’가 지표인 ‘the hillside’의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건너편의’인 예문을 살펴보자.

(37) a. Though the reflecting of the landscape on the other side all over the water was a simple principle... (Ship)

b. 어디든 물 건너편의 풍경이 물에 비쳐 보이는 것은 간단한 이치인데도... (배, p.60)

over의 한국어 대응표현인 ‘건너편’을 분석해보면 ‘마주대하고 있는

4) 이 희승 (1998. 서울: 민중서림) 「민중어센스국어사전」이 수록된 전자사전을 사용하였으므로 쪽수를 표시하지 못하였음.

저 편’(이희승: 1998)이란 사전적 뜻이 있으며, 강이나 바다 또는 길 처럼 평평한 것 사이에 두고 있는 반대편 저쪽을 가리킨다. 문맥상 탄도체인 ‘the landscape’가 지표인 ‘the water’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위로’인 예문을 살펴보자.

(38) a. Then, just before it hits the ground, he whips his racket back and delicately scoops the ball over the net, winning the point. (R.D.85집: 74)

b. 이어 공이 지면에 닿기 직전에 라켓을 재빨리 등 뒤로 돌려서 공을 절묘하게 넷위로 넘겨 득점을 했다. (R.D.85집: 75)

이 문장에서 나타난 한국어 대응표현인 ‘위로’를 분석해보면, ‘기준으로 삼는 사물이나 부분보다 높은 쪽’(이희승: 1998)이란 뜻의 명사 ‘위’와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된 것이다. 이동하는 탄도체는 ‘the ball’이고, 공이 넘어가는데 지표가 되는 ‘the net’ 앞에 전치사 over를 써서 공이 지표를 넘어 반대편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너편 의미에 나타난 한국어 대응표현은 ‘너머로’, ‘건너편의’, ‘위로’였다. 세 가지 표현 모두 over의 건너편 의미를 공통적으로 잘 드러낸 한국어 대응표현이라고 하겠다.

이제, 한국어 대응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진 동사 ‘cross’, ‘pass’가 over와 결합하여 ‘넘다’라는 한국어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이 많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39) a. Crossing over Kuridai Pass meant passing over a branching

ridge of the Tien Shans... (Ship)

- b. 구르다이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천산의 지맥을 넘는다는 뜻으로... (배: 47)

여기서 ‘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거나 경계를 지나가다’(이희승: 1998)로 지표가 되는 높은 곳인 ‘Kuridai Pass’와 ‘a branching ridge of the Tien Shans’ 위를 넘는다는 의미로 영어로 각각 ‘cross over’, ‘pass over’로 표현되었다. 동사 ‘cross’와 ‘pass’는 둘 다 ‘넘다’ ‘건너다’의 의미가 있는 동사로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여 전치사 over뒤에 목적어를 갖는다.

2.3 완료 의미

다른 의미들과는 달리 발견된 문장 총 7개에서 모두 한국어 대응표현이 발견되었으며, 세 종류의 한국어 대응표현이 발견되었다. 아래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표4]완료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우리말 대응표현	끝나다	마치다	지나다	합계
문장 수	5(71.4%)	1(14.3%)	1(14.3%)	7(100%)

- (40) a. When my conversation with Sokdae was over... (Hero: 16)

- b. 석대와 나의 대화가 끝난 뒤에... (영웅: 288)

(41) a. As soon as class **was over** in the morning... (Hero: 63)

b. 오전 수업이 **마친** 뒤... (영웅: 316)

(42). a Once the summer holidays **were over**... (Hero: 110)

b. 여름방학이 **지나자**... (영웅: 344)

위 세 문장에 있는 완료의미는 각 각의 탄도체, ‘my conversation’, ‘class’, ‘the summer holidays’ 의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완료 의미는 순수한 공간적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상을 기술하는 데에도 쓰인다. 세 단어의 한국어 의미를 알아보자. 먼저 ‘끝나다’는 ‘일이 다이루어지다’ 혹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어져 있던 것이 없어지다’(이희승: 1998)란 뜻이다. 다음으로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이희승: 1998)이고, 마지막으로, ‘지나다’는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되다’(이희승: 1998)란 뜻으로 풀이된다. 완료의미에서는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어 대응표현인 세 개의 동사의 교체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40b)에 있는 ‘끝나다’란 한국어 대응표현은 (41b,42b)에 있는 한국어 대응표현을 ‘오전 수업이 끝난 뒤’, ‘여름방학이 끝난 뒤’로 교체가 가능하다. (41b)에 있는 한국어 대응표현인 ‘마치다’와 (42b)에 있는 한국어 대응표현인 ‘지나다’는 다른 문장으로 교체하면 어색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밝힌 각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끝나다’의 의미는 다른 두 동사들보다 그 의미가 더 포괄적이다. ‘마치다’는 ‘일이나 과정이 끝나다’란 의미인데 (40b,42b)에 있는 ‘대화’나 ‘여름방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나다’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올 또 다른 기간을 기대하거나 예측 가능한데 (40b,41b)에 있는 ‘대화’나 ‘오전 수업’은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 결과적으로 세 개의 한국어 대응표현이 모두 ‘끝나다’란 단어로만 교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완료의미를 대표하는 한국어 대응표현은 ‘끝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의미들에서는 한국어 대응표현이 조사나 동사로 나타났는데, 완료 의미에서는 한국어 대응표현이 모두 동사로만 나타났다.

2.4 시간 의미

발견한 문장 10개중에서 9개에서 우리말 대응 표현이 나타났다. 시간의미에서는 한국어 대응표현이 두 개의 유형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전치사 over뒤에 모두 수와 함께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함께 쓰인 특징이 있었다. 두 번째는 over의 의미가 한국어의 동사로 나타났다. 두 가지 유형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표5] 시간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우리말 대응표현	~동안	~간	~째	~을	가다	걸치다	합계
문장 수	3(33.4%)	2(22.2%)	1(11.1%)	1(11.1%)	1(11.1%)	1(11.1%)	9(100%)

첫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인 ‘동안’인 예문을 살펴보자.

(43) a. **Over** the next weeks the daughter’s phone calls were met with

stony silence. (R.D.81집: 8)

- b. 그 후 몇 주일 동안 딸이 전화를 해도 진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R.D.81집: 9)

‘~동안’은 ‘시간과 거리에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사이’(이희승: 1998)를 의미하는 명사다.

두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간’인 예문을 살펴보자.

- (44) a. Over the next two weeks, Stephen underwent three operations.

(R.D.92집: 114)

- b. 그로부터 2주 간 스티븐은 세 차례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R.D.92집: 115)

‘~간’의 뜻은 ‘~동안’의 의미(이희승 1998)를 나타낸다.

세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째’인 예문을 살펴보자.

- (45) a.. ...,it has become a habit over the past two years.. (Harmonium)

- b. ...벌써 이년 째 습관처럼 하시는 일.. (풍금: 34)

‘~째’의 의미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계속 되는 동안’의 의미의 접사’(이희승 1998)다.

모두 첫 번째 우리말 대응 표현인 ‘~동안’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세 단어 모두 서로 교체 가능한 표현이란 점이다.

네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을’인 예문을 살펴보자.

(46) a . Although I had been particularly close to Sokdae over the last three or four months... (Hero: 99)

b.내가 마지막 서 녀 달을 석대와 유난히 가깝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영웅: 338)

‘~을’ 은 목적격 조사이지만 여기서 는 뒤에 오는 마지막 ‘서 녀 달’ 의 단어와 결합해 ‘서 녀 달 동안을’이란 단어를 줄여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대응표현인 ‘가다’와 ‘걸치다’는 둘 다 공통적으로 동사이면서 ‘over the course of’라는 어구가 사용되었으므로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다.

(47) a. Depression afflicts more than 19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t any given time, and almost one in five over the course of a lifetime. (R.D.92집: 90)

b. 생의 어느 시기에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미국의 경우 약 1900만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우울증이 평생 가는 사람은 5명에 한 명꼴이다. (R.D.92집: 91)

(48) a. Perhaps already I had a presentiment of the evil chance that was to unfold itself over the course of the next year. (Hero: 7)

b. 그 뒤 일 년에 걸친 악연이 그 때 벌써 어떤 예감으로 와 닿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영웅: 282)

(47a), (48a)에서는 ‘over the course of ~’라는 공통적인 어구가 쓰였다. (47b)에서는 ‘~가는’ 이란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48b)문장에서는

‘~걸친’으로 번역 하였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쓰인 영단어 ‘the course’의 한국어의미는 ‘진행,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영어 표현은 같은데 우리말은 ‘~가는’, ‘~걸친’으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두 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가는’의 기본형인 ‘가다’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상태나 형편 등이 계속되거나 유지되다’ 혹은 ‘시간 세월, 날 등이 경과하다’(이희승 1998)의 뜻이고, ‘~걸친’은 기본형은 ‘걸치다’로 ‘시간 공간 횡수를 거쳐 이어지다’(이희승: 1998)의 뜻이 있었다. 둘 다 단어 속에 시간의 경과가 함축적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영어단어 ‘course’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2.5 덮기

8개의 문장에서 한국어 대응표현이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나타났듯이 전치사 over의 대표적인 의미라 할 수 있는 ‘위에’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다.

[표6] 덮기 의미의 한국어 대응 표현

우리말 대응표현	~위에	~에	받치다	합계
문장 수	5(71.4%)	1(14.3%)	1(14.3%)	7(100%)

첫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위에’인 예문을 살펴보자.

(49) a. **Over** it were stapled larger section of stored skin from the bank,

sealing

the wound. (R.D.92집: 122)

- b. 피부은행에서 가져온 피부를 그 위에 덮고 핀으로 고정시켰다.
(R.D.92집: 123)

over의 원형 의미와는 달리 덮기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치상 위에 있고, 크기는 더 크다는 것을 앞에 의미망 조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over의 우리말 대응 표현이 '~위에'로만 나타났지만 정황상 탄도체인 상대적으로 크기가 더 큰 'skin'이 더 작은 지표인 'the wound'를 위에서 덮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ver의 다른 의미에서처럼 한국어 대응표현은 '위로'라고 나타났지만 over의 의미는 덮기로 봐야한다.

두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에'인 예문을 살펴보자.

- (50) a. ...,the flowers bloom over the entire plan. (R.D.81집: 112)
b. ...,온 들에 꽃이 폼니다. (R.D.81집: 113)

여기에 나타난 한국어 대응표현인 '에'는 처소격조사로 '장소'를 나타낸다.

세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받쳐'인 예문을 살펴보자.

- (51) a. He was wearing...,a brown cardian over a black crew-neck
shirt... (Harmonium)
b. 갈색 가디건에 검정색 목티를 받쳐 입고... (풍금: 35)

여기 나타난 한국어 대응표현인 ‘받쳐’는 ‘받치다’가 기본형이며,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건을 대다’(이희승: 1998)란 의미이다. 전치사 over가 한국어로는 동사로 표현되었다.

특별히 ‘덮기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형태가 없고, ‘위치’, ‘장소’로 표현되었다.

덮기 의미에는 흥미로운 문장들이 몇 개 발견되었는데, over의 직접적인 한국어 대응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사 ‘pull’, ‘pour’, ‘put’과 결합하여 유사한 한국어 대응표현이 나타났기에 아래에 소개하겠다.

먼저, ‘pull over’와 ‘pour over’의 예를 살펴보자. 한국어 대응표현은 같지만 영어로는 다른 동사로 표현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52) a. Dad went into the front room, while I retreated to my bed, **pulling** the covers **over** my head. (R.D.80집: 106)

b. 아버자는 거실로 들어갔고 나는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 가서 이불을 **뒤집어썼다**. (R.D.80: 106)

(53) a. **pouring** water **over** yourself or what (Ship)

b. 물이라도 **뒤집어쓰라는** 것인지도 (배: 56)

각 각의 탄도체인 ‘the covers’와 ‘water’가 지표인 ‘my head’와 ‘yourself’ 보다 크고 위치상 위에 있다. 여기서 ‘뒤집어쓰다’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머리에 얹어 쓰다’(이희승 1998)이고 두 번째는 ‘온몸을 내리덮다’(이희승: 1998)란 뜻이다. 예문(52)는 이불을 머리 위로 가져가는 상황으로 이해하여 첫 번째 뜻으로 봐야하고, 예문(53)은 물이 온 몸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으로 이해하여 두 번째 뜻으로 봐야한다. 약간의 뜻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나타났다. 영어표현은 다르지만 한국어 의미는 똑같이 ‘뒤집어쓰

다'로 나타났다.

반면, 영어 표현은 같지만 한국어로는 다르게 나타난 예를 살펴보자.

(54) a. **put** this three things **over** the packed rice... (Harmonium)

b. 이 세 가지를 밥 **위에 덮어주기도**... (풍금: 26)

(55) a. The Ellen **put** her hand **over** the mouthpiece and said... (R.D.80집: 38)

b. 이윽고 엘렌은 손으로 전화기를 **감싸며** 말했다... (R.D.80집: 39)

문맥의 정황상 위 두 문장(54,55)에서 over의 의미는 덮기로 볼 수 있고, 그 영향으로 동사 'put'이 over와 함께 '위에 덮다', '감싸다'로 각각 번역되었다. '감싸다'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보자기나 종이 등으로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하다'(이희승 1998)란 뜻이 있는데, 이 경우 위에라는 우리말 표현을 넣지 않아도 '감싸다'란 단어 속에 탄도체와 지표사이의 크기 차이나 공간상 위치를 함축하고 있다.

덮기 의미에서 나타난 우리말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인간 경험상 탄도체가 지표보다 크고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치사over가 가지는 의미는 같으나 우리말 대응표현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탄도체와 지표간의 관계나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 등을 고려하여 문맥의 흐름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검사 의미

한국어 대응표현이 있는 문장이 1개 발견되었다. 아래에 소개하겠다.

(56) a. As he ran his eyes over the windows... (Hero, p.65)

b. 그가 눈으로 창틀을 훑어보는 동안... (영웅, p.317)

탄도체인 'his eyes'를 움직여 지표인 'the window'를 위에서 구석구석 살펴보는 상황을 '훑다'로 표현했다. '훑다'는 '한쪽으로부터 쪽 더듬거나 살피다'(이희승: 1998)란 뜻이다. 탄도체의 시선이 지표를 향해있는 over의 검사 의미와 한국어 대응표현이 잘 맞아 떨어진 표현이다.

2.7 주의초점 의미

한국어 대응표현이 있는 문장이 '~에'가 2개, '~로(부터)가 2개로 총4개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예문 하나씩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첫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에'인 예문을 살펴보자.

(57) a. After seeming to think over what I had asked for quite a while...,

(Ship)

b. 내말에 한참동안 생각을 하는 듯하다가..., (배: 45)

여기서 '에'란 체언 뒤에 붙는 부사격 조사로 원인을 나타낸다.

두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로'인 예문을 살펴보자.

(58) a. Boys who didn't appear... picked fights over trifling things.,

(Hero: 25)

b.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싸움을 거는 것도..., (영웅: 293)

여기서 ‘로’란 부사격 조사로 문장(56b)에 있는 한국어 표현인 ‘에’처럼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며, 도구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 나타난 두 가지 한국어 대응표현은 전치사over의 주의초점 의미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므로 알맞은 한국어 대응표현이라 하겠다.

2.8 더 많음 의미

5개의 예문에서 우리말 대응표현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숫자와 같이 쓰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표7] 더 많음 의미의 한국어 대응표현

우리말 대응표현	넘다	~이상	~여	합계
문장 수	3(60.0%)	1(20.0%)	1(20.0%)	5(100%)

첫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넘다’인 예를 살펴보자.

(59) a. Noticing his speedometer was **over** 60, he slowed down. (R.D.81집:

73~74)

b. 시속 60마일이 **넘는** 것을 속도계를 보고 아버지는 속력을 낮췄다.

(R.D.81집: 74)

‘넘는’의 기본형인 ‘넘다’는 ‘정한 범위, 수량, 정도를 초월하다’(이희승:

1998)란 뜻의 동사다.

두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이상’인 예를 살펴보자.

(60) a. Plagiarism.org, for instance, will compare a student’s work with the **over** 100,000documents in its database... (R.D.85집: 50)

b. 예를 들면Plagiarism.org같은 표절적발 전문 사이트는..., 10만개 이상의 문서 및... (R.D.85집: 51)

‘~이상’은 ‘수량 정도 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더 많거나 위’(이희승 1998)란 뜻의 명사다.

세 번째, 한국어 대응표현이 ‘~여’인 예를 살펴보자.

(61) a. As the continent dried and the forests retreated..., **over** 70 species of which are known to exist today. (R.D.92집: 22)

b. 대륙이 건조해지고 숲이 사라지면서...,오늘날 서식하고 있는 70여종의... (R.D.92집: 23)

‘~여’의 뜻은 ‘한자로 된 수사 뒤에 붙어 그 이상’(이희승: 1998)이란 뜻의 접미사이다.

세 개의 단어가 품사는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수량정도를 초과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치사 over의 더 많음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2.9 통제 의미

1개의 문장에서 한국어 대응표현이 나타났다.

(62) a. The teacher's blind trust...and allowed him to reign so powerfully
over us. (Hero: 30)

b. 담임선생님의 그 눈 먼 신임이...그를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 위에 군림
하게 했다. (영웅: 295)

위 문장에서는 ‘위에’라는 한국어 대응표현이 나타났다. 탄도체 ‘him’이 지표인 ‘us’위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 힘 또한 더 크다는 것을 함축한다. 통제 의미를 나타내는 특별한 대응표현은 없는 것 같다.

2.10 재귀 의미

한 개의 문장에서 한국어 대응표현이 나타났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63) a. The man had stumbled over the wall... (R.D.85집: 108)
b. 계곡 암벽에 걸려 넘어진 그 남자는... (R.D.85집: 109)

전치사 over의 한국어 대응표현인 ‘넘어진’의 기본형인 ‘넘어지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한 쪽으로 쓰러지다’(이희승: 1998)란 뜻이다. ‘재귀 의미’에 대한 한국어 대응표현은 ‘넘어지다’인 동사로 나타났다.

2.11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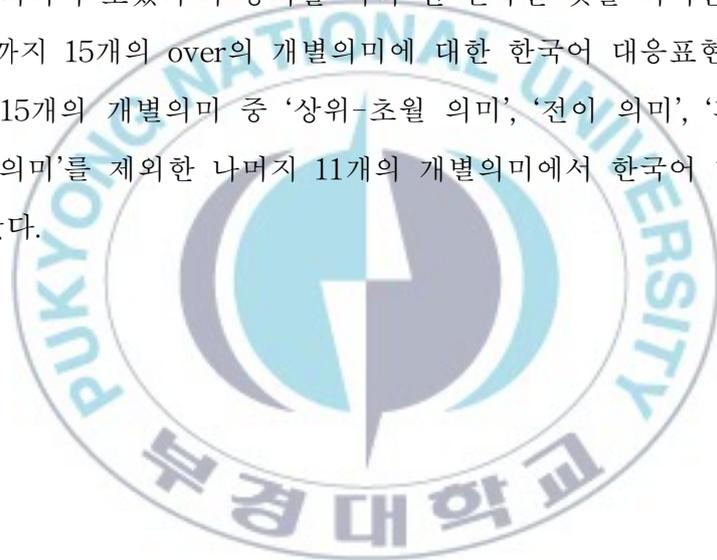
한 개의 문장에서 우리말 대응표현이 나타났다. 예문을 살펴보자.

(64) a. I had flashbacks of myself in a middle school geography class,
repeating over and over again... (ship)

b. 중학교 때 지리 시간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다. (배:
21)

‘over and over’의 우리말 대응표현인 ‘몇 번이고’에서 over의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 ‘몇’의 뜻은 ‘확실하지 않은 수나 그리 많지 않은 약간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말’(이희승: 1998)이다. 문장의 동사인 ‘되뇌어 보았다’의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15개의 over의 개별의미에 대한 한국어 대응표현을 살펴보았다. 15개의 개별의미 중 ‘상위-초월 의미’, ‘전이 의미’, ‘과도-상위’, ‘선호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개별의미에서 한국어 대응표현이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 over의 다양한 의미를 Tyler & Evans(2003)의 이론을 토대로 원형 의미를 포함한 15개의 개별의미들을 알아보고,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over의 개별의미 분포와 각 개별의미가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한 총 148개의 문장 중에서 over의 개별의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건너편 의미’가 50개(33.7%)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으로 ‘원형 장면’ 18개(12.1%), ‘주의 초점의미’ 16개(10.7%), ‘덮기 의미’ 14개(9.5%), ‘전이 의미’ 12개(8.1%), ‘시간 의미’ 10개(6.8%), ‘더 많음 의미’ 8개(5.4%), ‘완료 의미’ 7개(4.7%), ‘통제 의미’ 6개(4.1%), ‘검사 의미’ 2개(1.4%), ‘재귀 의미’ 2개(1.4%), ‘반복 의미’ 1개(1.7%), ‘과도-상위 의미’ 0개(0%), ‘선호 의미’ 0개(0%) 순으로 발견되었다. 그 중 한국어 대응표현이 있는 문장은 49개로 ‘시간 의미’ 9개(18.4%)부터 ‘원형 장면’ 8개(16.4%), ‘완료 의미’ 7개(14.3%), ‘덮기 의미’ 7개(14.3%), ‘더 많음 의미’ 5개(10.2%), ‘주의초점 의미’ 4개(8.2%), ‘검사 의미’, ‘통제 의미’, ‘재귀 의미’, ‘반복 의미’가 각 각 1개씩(2.0%), ‘상위-초월 의미’, ‘전이 의미’, ‘과도-상위 의미’, ‘선호 의미’는 각 각 0개(0%)로 나타났다.

각 개별의미별 한국어 대응표현을 원형장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형장면에서는 ‘(으)로’가 3개(37.5%), ‘~을/를’이 2개(25.0%), ‘~에’, ‘~따라’, ‘~위로’가 각 각 1개씩(12.5%)순으로 나타났다. 건너편 의미에서는 ‘너머’가 3개(60.0%), ‘건너’가 1개(20.0%), ‘위로’가 1

개(20.0%)순으로 나타났다. 완료 의미에서는 ‘끝나가’가 5개(71.4%), ‘마치다’, ‘지나다’가 각 각 1개씩(14.3%)순으로 나타났다. 시간 의미에서는 ‘~동안’이 3개(33.4%), ‘~간’이 2개(22.2%), ‘~째’, ‘~을’, ‘가다’, ‘걸치다’가 각 각 1개씩(11.1%)순으로 나타났다. 덮기 의미에서는 ‘~위에’가 5개(71.4%), ‘~에’, ‘받치다’가 각 각 1개씩(14.3%)순으로 나타났다. 검사 의미는 ‘훑다’라는 한 개의 표현만이 나타났고, 주의 초점 의미에서는 ‘~에’가 2개(50.0%), ‘~로(부터)’가 2개(50.0%)로 나타났다. 더 많음 의미에서는 ‘넘다’가 3개(60.0%), ‘~이상’, ‘~여’가 1개씩(20.0%)나타났다. 통제 의미에서는 ‘~위에’, 재귀 의미에서는 ‘넘어지다’, 반복 의미에서는 ‘몇 번이고’라는 대응표현이 각 각 하나씩 나타났다.

영문법에서는 전치사인 over가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나타날 때는 ‘끝나다’, ‘넘다’와 같이 동사로 ‘~을/를’과 같이 조사로 혹은 ‘위’같이 명사로 나타났다. 비록 품사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국어 대응표현들 간의 의미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병렬언어자료

한영 병렬 언어자료

- 김 원일. 1998. 마음의 감옥. 「이상 문학상 수상 작품집」, 21-80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신 경숙. 1993. 풍금이 있던 자리. 「풍금이 있던 자리」, 11-43.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윤 후명. 1995. 하얀 배. 「이상 문학상 수상 작품집」 19, 19-64.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 문열. 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중단편집」 4,
281-349. 서울: 도서출판 등지
- .Julie Pickering (1997) *Prions Of The Heart*. <<http://www.sogang.ac.kr/~anthony/klt/97wint/kimwonil.htm>>
- Tennant, A. M. 1998. *Where the Harmonium Was*. <<http://www.sogang.ac.kr/~anthony/klt/98wint/shinkyongsuk.htm>>.
- O'Rourke, K. 1988. *Our Twisted Hero*. Seoul: Minumsa Publishing Company.
- Shaffer, D. E. 1997. *White Ship*. <<http://www.sogang.ac.kr/~anthony/klt/97fall/yunhumyong.htm>>.

영한 병렬 언어자료

- Reader's Digest* 80. May-June, 2006. 서울: 두산잡지BU.
- Reader's Digest* 81. July-August, 2006. 서울: 두산잡지BU.

Reader's Digest 85. March-April, 2007. 서울: 두산잡지BU.

Reader's Digest 92. May-June, 2008. 서울: 두산잡지BU.

Reader's Digest 93. July-August, 2008. 서울: 두산잡지BU.



참 고 문 헌

- 이희승. 1998. 「(민중)에센스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최현배. 1961.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vans, V. 2000. *The Structure of Time: Language, Meaning and Temporal Cognition*. P.h.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Metaphor and Thought* (second edition), ed. by A. Or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Lakoff, G. & M.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1987.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vol. I.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1991a *Concept, Image and Symbol*. Berlin: Mouton de Gruyter.
- Langacker, R. 1991b.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vol. II.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1992. Preposition as Grammaticalizing Elements. *Leuvenese Bijdragen*, 81: 287-309.
- Langacker, R. 1999a.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O'Dowd, E. 1998. *Prepositions and Particles in English: A Discourse-functional Accou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yler, A. & V. Evans. 2001a.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Conceptual Structure and Meaning: Non-temporal Uses of Tense and Language Teaching. In *Applied Cognitive Linguistics: Theory, Acquisition and Language Pedagogy*, ed. by M. Putz, S. Niemeier & R. Driven, 63-105. Berlin: Mouton de Gruyter.
- Tyler, A. & V. Evans. 2001b. Reconsidering Prepositional Polysemy Networks: the Case of *over*. *Language* 77(4): 724-65.
- Tyler, A. & V. Evans. 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